

개혁주의의 예배

오 병 세 박사
(고신대학신학대학원교수)

1. 예배의 뜻

우리말로 예배라고 할 때에 그 뜻은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예배에 관해서 몇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첫째, 샤카(shachah)라는 말인데 이것은 허리를 굽혀서 절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가나안의 영주들이 애굽 바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할 때 쓰여진 말이며, 또한 피조물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데 쓰여지기도 하였다(창 24 : 52 ; 대하 7 : 3 ; 29 : 9). 이 샤카는 무릎을 꿇든지, 또는 선물을 받을 때의 자세에도 쓰여졌다. 이렇게 샤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경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데에 쓰여

졌다.

또한 아바드(abad)라는 동사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종(ebed)이 주인을 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집의 종이나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 그리고 속국의 군주가 그 종주국의 황제를 섬기는 데 쓰여진 말이다. 이 말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쓰여지면 그것은 경배자가 하나님 앞에 종, 백성, 속국의 군주같이 봉사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은 할렐(hallel : 할렐루야라는 말의 한 부분), 곧 찬양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기쁘게 소리를 내고 또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한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특별히 악기를 동원하여 소리내어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구약의 예배는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허리나 무릎을 꿇고 봉사하며 그 이름을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A. S. Herbert, Worship in Israel, Richmond : John Knox Press, 1959, pp. 10-12)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예배를 나타낼 때 라트류오(latreuo)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섬긴다는 뜻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봉사하는 행위에 쓰여졌다. 그리고 프로스큐네오(proskuneo)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절한 다라는 행위를 동반하는 예배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레이트르게오(leitourgeo)는 공적 봉사를 한다는 뜻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 쓰여진 말이다.

이렇게 라트류오나 프로스큐네오, 그리고 레이트르게오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행동에 쓰여지기도 하였지만, 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몸으로 또는 보수를 받게 되는 행동이나(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에 있어서) 희생제물을 바쳐서 경배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졌다(롬 1 : 9). 이렇게 피조물 된 사람이 조물주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

2. 구약의 예배

구약에서 개인적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으나 공적 예배의 시작은 셋의 시대부터였다(창 4 : 26).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창 13 : 3). 이렇게 하나님의 자현(theophany)이 있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족장들의 생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경배가 제도화된 것은 모세시대였다. 모세시대에 다섯 종류의 제사제도가 확립되었다.(레 1~7장)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 산 예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기회가 이루어졌고,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시내 산 예배가 후대의 모든 예배의 기준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 특이성을 살펴보기로 한다.(출 19~24장)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예언하셨다(출 3 : 12 ; 4 : 22).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배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이다.

시내 산 경배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70인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곧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 경배에 동참하였다. 예배는 대표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회중이 드리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다.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뜻을 잘 보여주셨다.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위치에서 계약하는 동위계약(parity treaty)이 아니라 종주권계약(Suzerainty treaty)에 속하는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맹세로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들에게 어떤 공로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다.

다섯째, 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피로써 인을 치는 비준행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받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 24 : 6-8)라고 하여, 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내 산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피로써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만나셨다(Robert E. Webber, 김지찬 역, 예배학,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8. pp. 24-26). 그리고 성막과 성전은 지상에 있는 가건적 처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표를 두신 곳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규범에 따라서 대면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공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제도나 제사제도와 절기들은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곧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희생제물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3. 신약의 예배

태양이 동편에 떠오름으로 촛불이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피제사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유대교의 제사와 의식이 끝나게 되었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과 부활을 중심한 역사적 사건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충족시켰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제사제도가 더 필요없게 되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의 장소에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성전이라는 특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이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일정한 곳으로 단정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중앙성소 곧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오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신 다음에는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의 중보사역만 힘 입으면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특징이다. 이제는 선민인 유대인만이 아니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선민이 되는 것이요,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에서 선교의 종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만 믿으면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길이 열렸다.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애굽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셨다.(슥 14 : 19)

그 뜻은 어느 지역이나 인종에게 구원의 은혜가 제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임하며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향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불살라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향하시고 범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죄를 용서하였거니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큰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에게는 동물의 제물이 필요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 받아 주시게 되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물려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엄성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이다. (Robert G. Rayburn, *O Come, Let Us Worship*,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0, p. 24)

4. 예배의 신학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다(출 25 : 40 ; 26 : 30). 구약의 성소나 제사제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제물의 종류와 드리는 방법과 제사드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쁨부음 받은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셨다. 사울은 왕이었으나 사태가 위급하여 부득이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인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일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구약에서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의 백성이 그 제도를 따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따라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그가 구축하신 교회에게 부탁하시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지시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회중이 고백하여 아멘으로 동의하고 승인하여 순복하는 순서를 가진다. 그런데 신약교회의 예배 메시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었다.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제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중심해서 이루어진다. 곧 그의 성육, 생애, 죽음, 부활과 그의 재림으로 맞는 종말을 생각하며 그것을 되풀이해서 전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각케 하며,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늘 예배의 광경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찬송과 감사와 경배가 있는 가운데 유대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 곧 메시아를 인해서 성부에게 경배가 올려졌다. 이렇게 예배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다. 이와 같은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두 성례 곧 세례와 성찬도 예배의 주요 부분이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사는 체험을 하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의 죽으신 것을 재림 때까지 전파하는 예식이 성찬이다. 이런 것이 신약교회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게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신다.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는 표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 성전이 없어지게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회당이 성전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이르는 곳에 회당을 세워 거기서 하나님

을 경배하였는데 이 회당에서의 중요한 예배순서는 율법을 봉독하는 것과 그 율법의 해설이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거점으로 하여 거기서 구약을 봉독하시고 그 말씀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된 예배의 순서가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로 대치되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예배로서 이루어졌다.

구약성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주된 순서였으며, 회당의 예배에 있어서는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요소가 예배의 주요부분으로써 형식적인 의식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계시의 선포가 주된 것이며, 여기에 성령께서 감화하심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따랐다.

타종교에 있어서는 예배란 단순히 사람이 신에게 제물을 봉헌함으로써 복을 받고자 하는 의식이다.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재앙을 면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교에 있어서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가릴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숙명적인 것으로 해답을 받고 경배자는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했다.

신약시대 예배의 표본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다. 곧 피조물인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 됄을 잘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을 기원하고, 아직 악의 세력이 지상의 만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빨리 하나님의 완전통치가 임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같이 지상에서 성취되어 악의 세력이 물리침을 받도록 기도하며 경배한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양망하며, 날마다 범한 우리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해방되게 해주시기를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

의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신앙과 생활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께 바쳐, 그의 영광과 존귀한 찬양을 드리는 신앙적 행위이다.

이러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주도되고 말미암고 추구되어지는 예배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러함으로 예배란 참된 신자의 거룩한 생활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5. 개혁주의적 예배를 위한 제언

개혁주의적 예배란 성경에 토대한 예배이다. 기독교 예배도 문화적 배경과 신도들의 형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하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지내는 것이라고 하였거니와 오늘날의 예배는 참석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 제사지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영화관에서 쇼를 보고 가는 느낌이 아닐까 걱정스럽다. 교회가 점차적으로 대형화되고 예배를 2부, 3부 등으로 여러 번 드리니 영화관의 연속상영처럼 사람이 사람만 보고 가는 형식이 되지 않느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회중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기 어렵다.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창 28 : 16)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2)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가야 한다.

오늘 신교의 예배당은 그 구조부터 예배 처소로서 타당한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먼저 신도 수용을 많이 하려고 예배당이 창고같이 되어 있고, 조명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너무 높은 강단과 너무 넓은 강단을 만들어 불필요하게 장소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과연 신자가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를 반성하며, 은은한 분위기에서 영혼의 휴식과 영혼의 위안을 받을 그런 장소가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구교같이 보는 교회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3) 시간 문제

예배시간은 개척교회나 환자,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의 예배 등은 짧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예배에 있어서 시간에 쫓겨 순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요사이 주일 아침 예배에 십계명을 봉독하거나 교독하는 교회를 보기 힘들다. 한 주간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지난 주에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반성하도록 십계명을 교독하고 간단하나마 죄를 고백하는 기도나 묵상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혹 성서교독이나 사도신경은 저녁시간으로 옮기더라도 십계명 교독은 필수적으로 할 수 있기 바란다(G. Vandoooren, *The Beauty of Reformed Liturgy*, Manitoba : Premier Publishing, 1980. pp. 30, 31). 그리고 혹 시간에 쫓기면 무언 사회를 하고 또 광고는 주보에 기록하여 각자가 읽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광고시간은 길게 하면서 다른 순서는 너무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지금은 스피드 시대가 되어서 다른 계획들이 있다고 하며, 사람의 마음의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기 쉽다고 하여 예배를 60분 내지 70분에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80분, 90분, 100분, 120분 짜리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청중을 의식해서 빨리 마치려고만 하지 말고 교인들이 한 주간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을 생각해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경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을 생각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께 드리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구약시대 제사가 희생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